

있는 그대로의 받아들임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시편 8,4 가)

촬영 : 박현식 프란치스코 | 살레시오 기자

신학교에 입학했던 1994년 여름에는 대구 역대 기온 중 네 번째로 높았던 39.4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그날 다른 신학생 한 명과 함께 본당에서 막노동 작업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옥상에서 대형 쇠망치로 부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일에 온통 집중해서인지 더워죽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작업을 마치고 선풍기 틀어 놓고 시원한 음료수(?) 마시며 마냥 행복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렇게 한다면 주위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말리겠지요? 위험한 일이니 따라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요즘은 불편함을 잘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기온이 30도 가까이만 올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에어컨 리모컨에 손이 갑니다. 더운 것은 비정상이고 시원하고 쾌적한 것은 정상으로 여겨서 그럴까요? 그 외에도 이미도로가 있어도 1-20분 빨리 가려고 산을 뚫어 길을 내고, 10분 기다리는 데도 지루하고 시간 아깝다고 다그칩니다. 그 밖에도 조그마한 불편함에도 쉽게 화를 내고 안달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의해 흔들린다면 과연 내 삶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주변’일까요? ‘나’일까요?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 많은 작품을 남긴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뮈(Albert Camus)는 세상과 현실에 대하여 그리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현실의 간격에서 부조리(不條理)가 생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까뮈는 이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선택으로 “반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반항이란 불평하거나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그가 말하는 “반항”입니다. 이 “반항”은 사회적인 연대로 이어져 불의한 현실에 대해 절망하여 포기하거나 근거 없는 희망을 품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까뮈의 소설 ‘이방인’에서 주인공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날아다니는 새들과 떠다니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에어컨 아래서는 되려 덥다고 투덜거리지만 더울 때 한 줄기 소나기와 한 자락 바람에는 시원함을 느끼며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땀 뻘뻘 직선으로 달려가는 길에서는 오히려 조급함을 느끼지만 둘러 가는 산길에서는 그 경치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또한 즉석에서 똑딱 이루어지는 데에는 왠지 허전함을 느끼지만 기다리는 10분이 있어 삶에 대해 감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어떤 화려한 의미를 가져다 붙이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반항하는 삶이 생명을 살리는 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고 주어진 현실을 즐기며 충만해지는 그런 태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본지 주간



가정교리 (15)

교회(1)

신경에서 “교회를 믿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건물 등 외견상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비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단순히 거대한 자선 단체나 조직이라고만 여기는 것은 지극히 세상의 관점입니다. 먼저 교회(教會)는 ‘교인들의 모임’을 뜻하지만 원래 교회(Ecclesia)라는 말은 ‘불러 모음’을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적 집회를 가리키는 말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초기 공동체들이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르면서 하느님의



새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양 우리(예수님-문), 양 떼(목자), 하느님의 밭(주인), 포도나무 가지(포도나무), 하느님의 집(모퉁이 돌), 신부(신랑)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겨난 말이 ‘온전한 그리스도’(Christus totus)입니다.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믿는 이들이 온전히 한 몸이 되었음을 가리키며, 기도, 성사와 전례, 복음 선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은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행위입니다. (출처: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99-100쪽 참조) **금빛**

교황님 한 말씀

그분의 이름으로 친교를 이루기로 다짐합니다

십자성호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 포옹처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를 완전히 감싸고 있음을 스스로 반복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하느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친교를 이루기로 다짐합니다.
- 2023년 6월 4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삼종기도 혼화 중 -



본당 소개

포항 성유대철성당



포항시 오천읍 원리에 위치한 성유대철성당(주임신부: 최호 요한보스코)은 4대리구 2지역 소속입니다. 2005년 오천성당을 모본당으로 문덕성당으로 분가하였으나, 2015년 조립식 성전이 폭설로 붕괴되면서 지금의 성유대철성당으로 변경하여, 2017년 새 성전을 봉헌하였습니다. 주보 성인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순교한 성 유대철입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는 200여 명 정도이며, 주위에 군부대가 있는 지리적 특성으로 전출입이 빈번하지만, 선교와 냉담자 회도에 적극적으로 공동체가 나서며 신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호 요한 보스코 주임신부는 “‘친교의 해’를 맞아 ‘친교로 하나되어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본당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화합하는 공동체, 활기찬 주일학교, 활발한 레지오가 되도록 온 공동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본당을 소개하였습니다. **금빛**

이구동성

세계 여러나라 말로 미사경문을 배워 볼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hallowed be thy name

[영어]

할로워드 비 다이 네임



み名が聖とされますように

[일본어]

미 나 가 세-토 사 레 마 스 요-니



愿你的名受显扬

[중국어]

위엔 니 더 밉 셔우시엔 양



Chúng con nguyện danh Cha cả sáng

[베트남어]

쭉 쏬 응웬 얀 짜 까 상



Santificado sea tu nombre

[스페인어]

싼띠피까도 세아 투 뇨브레

교회의 상징들

사람-마태오의 상징



교회미술에서 성 마태오는 묵시록에 언급된 ‘살아있는 네 생물’에서 유래한 상징에 따라 날개 달린 사람(천사)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귀도 레니(Guido Reni, 1575-1642)는 “성 마태오와 천사”(왼쪽)라는 작품에서 금발의 천사가 손가락을 가리키며 일러주는 대로 복음서를 집필한 장면을 묘사하였다. 세리였던 그의 경력 때문에 교회미술에서 그는 장부를 펼쳐든 모습으로 많이 그려진다. **금빛**

생명을 주는 가정!

- 한국천주교회 주최 최초의 생명대행진 대구서 시작
- ‘생명 문화 전파하는 사도’와 ‘생명 존중 확산’ 운동

생명의 소중함과 존중이 경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생명문화 확산을 위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위원장: 이성효 리노 주교) 주최,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국장: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주관 ‘생명대행진과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가 지난 5월 27일(토) 범어대성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현장을 7월 생태·생명 지면에서 특집으로 소개합니다.

한국천주교회 주최 최초의 ‘생명대행진’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주최의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는 2021년 수원교구를 시작으로, 2022년 전주교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축소 개최되었던 이 행사는 2023년 정부의 방역지침 완화를 계기로 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 주관으로 확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생명대행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구장 조환길 타대 오 대주교와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리노 주교 그리고 전국에서 온 사제, 수도자, 평신도 400여 명은 피켓과 바람개비를 들고 수성성당에서 범어대성당까지 생명대행진에 참여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조환길 타대 오 대주교는 “오늘날 생명에 반하는 문화 확산을 막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 문화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주적 시각의 생명 이해와 ‘토크콘서트’

2부는 ‘생명을 주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세대별 패널들(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의 토크콘서트가 대구cpbc 김현정마리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크콘서트 기조강연을 한 송영민 아우구스티노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는 우주적 시각에서 생명을 마주할 때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으며 생명을 주는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세대별 패널들은 각자가 이해하는 생명의 이해와 현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나누어주었습니다. 특별히 각 세대별로 공통적으로 교회와 가정에서 생명공부와 교회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지기를 희망했습니다. 토크콘서트는 생활성가 밴드 하늘바라기의 찬양이 함께 어우러져 ‘생명을 주는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더욱 뜻깊은 울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



3부는 낙태없는 세상과 생명문화 확산을 위한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로 봉헌되었습니다.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리노 주교의 주례로 봉헌된 이날 미사는 조환길 타대 오 대주교와 전국 가정사목 담당 사제들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미사의 복사는 3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에서의 신앙전수의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박재광 요셉(대곡성당) 가족(사진④)이 함께 복사를 하며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의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이성효 리노 주교는 이날 강론에서 “생명대행진이 태아 생명권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여론의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작은 한 걸음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고, 생명문화를 구축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조속한 낙태죄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 ① 장엄강복 ② 강복을 받고 있는 신자들
- ③ 단체사진 ④ 3대가 함께 복사를 선 박재광 요셉(대곡성당) 가족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가톨릭신자들에게 이번 대회는 생명의 소중함과 그 생명을 맞이하고 환대하는 자리가 가정이며, 생명을 나누어 줌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가정과 생명을 위한 미사’는 대전교구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빛**

부부 이야기

기적은 나로부터..

“하느님, 이렇게는 더이상 못 살겠습니다. 교회법으로는 이혼도 안된다면서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느님이 알아서 책임져주세요. 저는 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몇 년 전, 미사 중에 성전에 걸린 커다란 십자가 앞에서 기도인지 녀두리인지 모를 마음들을 쏟아내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나 혼자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마음 한편에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본당 신부님께 ‘ME주말’을 권유받았고, ‘**남들 다 이렇게 사는거 아닌가? 우리 부부가 그래도 그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들었지만, 신부님이 뭐 나쁜걸 권해 주시겠어? 라는 생각에 참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이들 없이 남편 요한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결혼 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한티 성지로 가는 차 안은 아이들이 없으니 조용했고, 아이들이 야기를 빼고 나니 딱히 할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결혼 10여 년 만에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는 기쁨과 ‘남이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기대로 주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말이 진행되면서 보기만 하면 **짜증이 나는 요한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예전 요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요한을 외면하고 있었던 동안 요한은 혼자서 무던히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아. 맞아. 요한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요한은 10여 년 전 내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였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많이 변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과,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살았지만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회사생활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되면 그게 가족들 모두가 잘되는 것이라 굳게 믿으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견뎌와 준 요한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 울컥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도, 무언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들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저의 소울메이트이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절친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원수’에서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절친’이 되게 해준 이 소중한 기적을 만나게 해준 ‘ME주말’에 감사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



이진준 사도요한, 최건희 마리데레사 부부
(ME 대구협의회)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에페 5,33)

이야기가 있는 가족 사진

딸 같은 ‘빅토리아’



성모님께서 가족으로 맺어주신 착한 며느리 빅토리아를 떠올립니다. 성당을 오갈 때마다 성모님께 “우리 아들에게 참한 아가씨를 마련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들어주셨습니다. 10년 전엔 3대(시아버님, 남편, 아들)가 레지오를 하는 가족이라고 교구장님의 축복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예쁜 손녀와 함께 4대가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빅토리아가 대식구의 집안

일을 기쁘게 해내고, 제가 운영하는 꽃가게에서는 훌륭한 플로리스트로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빅토리아에게 큰 사랑을 베푸시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소서!” 전생애 딸이었을까 싶을 만큼 내 맘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며느리 빅토리아!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미, 영광드립니다!

허선희 율리아나
(삼덕성당)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 여러분의 가족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3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추억속으로

하계 교리교사 행사



1980년 교리교사학교 졸업식(대명동 가톨릭문화관)



1981년 산간학교 지도자 연수회(가천 만남의 집)

(제공: 교구사료실)

부모와 자녀 관계 (15)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녀의 정서발달

부모와 자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자기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표현하며 ‘인정받아 좋다’, ‘안식처가 있어 좋다’, ‘내 뜻으로 할 수 있어 좋다’는 느낌을 통해 건강한 정서발달을 합니다.

자녀가 건강한 정서발달을 하려면 부모가 심리적 통제를 하지 않는 안정된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사랑과 돌봄을 이유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대하거나 부모의 성취기준에 따라 주길 강요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로 작용합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느끼며 성장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끊임없이 인정과 수용을 갈구하고 자신의 욕구보다 부모의 바람에 먼저 몰두하기 때문에 부모와 심리적 분리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일에 완벽을 추구하면서 일은 끝맺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건강한 정서발달을 할 수 있도록 양육과 소통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통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는지 다음 내용을 통찰해 봅시다. **첫째, 자녀가 하는 말을 막거나 간섭하여 방해하는 태도로 자녀의 언어적 표현을 억압(제한)하고 있는가? 입니다.** 언어적 표현에 제한을 받으면 자녀는 ‘내가 틀렸구나’하는 수치심으로 위축돼 말문을 닫고 때로는 울음으로 소통을 끝냅니다. 자녀의 말은 일단 무조건 끝까지 들어줘야 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둘째, 자녀가 하는 말에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판단해서 자녀의 느낌(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감정 무시’를 하고 있는가? 입니다. 자녀는 긍정적 감정이나 욕구 좌절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해서 마음이 진정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진정시켜주는 부모와의 관계 경험으로 감정 조절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감정은 불편한 것이지만 표현해도 되는 것이고 좌절해도 수용되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경험은 자녀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셋째, ‘부모를 걱정시키면 안 돼!’라며 사랑 철회로 불안이나 죄책감을 자극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봅시다. 자녀가 부모의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 매달리다 보면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자기다움을 위해 매진할 할 없습니다. 그런 자녀가 자기 욕구 충족이 결핍되고 누적되면 부모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과 자녀를 분리하여 자녀의 욕구와 감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가 건강한 정서발달을 바탕으로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위해 나아가도록 부모는 자녀에게 미칠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통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한혜숙 에밀리아나** (대상관계심리상담사) 감사합니다.



편지글

그리운 어머니께
-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

어머니!

아주 오랜만에 어머니를 불러 봅니다. 어느새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신 지도 4년이 다 되어 가네요. 주님은 잘 만나셨지요? 그 누구보다 선하신 분이셨으니, 지금쯤 주님 곁에서 편안히 쉬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머님과 저 사이에는 참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다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 결정을 어머니께 통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취직을 원하셨던 어머니를 속이고서 몰래 대학원에 진학한 저에게,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써 주셨지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지? 엄마가 미안하구나.” 짝박한 내용이었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변함없이 저를 지지해 주셨는데,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한 채 외면했었던 건 오히려 저라는 사실도 깨달았지요.

그런데도 저는 막연히 어머니께서 오래도록 제 곁에 계실 것이라 생각해서인지, 마음과는 달리 표현에 참 많이 인색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괜히 낯부끄럽게 느껴져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네요.

시간이 흐를 만큼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머니의 빈자리가 쉽사리 채워지진 않습니다. 가끔은 하루하루의 일상이 고달파 어머니께 맘껏 투정을 부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위안이 되곤 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어머니께 자주 드리지 못했던 말을 늦게나마 전합니다. “어머니, 제가 많이 사랑합니다.”



황명환 세례자요한
(평리성당)

첫영성체 당시 본당 제대 앞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 가톨릭 금빛신문은 독자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700자 내외의 편지와 가족사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노년의 영성

토빗기에서 배우는 행복한 삶



구약 성경 46권 가운데 토빗기는 토빗의 일생을 통해 어떤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토빗은 자신이 평생토록 진리와 선행의 길을 걸어 왔다(1,3)고 이야기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향을 떠나 앓시리아 땅 니네베로 유배 온 이후에도 그의 삶은 한결 같았습니다. 비록 유배 생활을 하는 신세이지만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은 고향에서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1,11) 그리고 동족에 대한 애정 또한 변함이 없었습니다. 동족에게 자선을 베풀고(1,16) 죽은 동족은 유배지 법에서 금하고 있었지만 묻어 주었습니다.(2,3-8) 이처럼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께 또 동족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새 똥 때문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에 겹쳐 불구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충실한 삶을 살았던 토빗은 후손들에게도 같은 삶을 살도록 유언을 남기고(14,6-8) 마무리 하였습니다. 토빗기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 대한 충성은 변함없어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금빛**

고 하느님께 원망은커녕 그의 충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2,13) 4년을 눈이 먼 채로 지내다가 대천사 라파엘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가 다 다르자 토빗은 시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11,11-14) 며느리도 얻게(11,17) 되었습니다. 이렇



활기찬 노년

월성성당 시니어 아카데미



충남 당진 신리성지 순례

월성성당(주임신부: 이정효 예로니모) ‘시니어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시니어 아카데미(매주 금요일 10:00-14:00)는 2019년 3월에 설립되었으며, 수업에는 70세 이상의 학생 67명이 활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10명의 봉사자는 캘리그래피 수업, 성가 및 가요 교실, 소품 만들기, 건강 체조, 신부님 수녀님의 성경 공부, 건강강좌, 성지순례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종강 때 명랑 운동회를 개최하여 청백군으로 나누어 게임, 춤, 노래 경연을 함께 하는 것은 월성 시니어 아카데미의 특색이며 마무리의 절정입니다.

학장인 조용주 마리아 자매는 “봉사자들은 내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어른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 합니다. 그분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니어들을 위한 활동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더 좋은 아카데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취재: **조태영 도미니코** | 살레시오 기자
사진제공: **조용주 마리아** 학장

노년의 향기

꿈꾸던 장애인 일터 운영

‘예꿈 3차 꾸르실료’ 교육을 마친 후 천국에 갔다 온 기분으로 집에 왔다. 몇 주가 지난 지금, 행동과 생각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변화가 왔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계획했던 일이 잘 돼가고 있다.

아내를 대신해 쌀을 안치고 그릇을 씻고 하느님께서 준비한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언제 일어났는지 아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다가와 아침기도를 청한다. 우리 가족은 아침, 저녁기도를 가족 기도도로 드린다.

10년 전 농촌 마을 넓은 폐교를 임대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이사 왔지만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없어 가족들과 함께 한방비누를 만들게 되었다. 지나온 시간을 펼쳐보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가족과 함께한 시간들이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 가족은 유튜브를 통해 신부님, 수녀님의 강의와 성가를 많이 듣는다. 매일 아침 식사 시간에 매일미사 방송을 듣고 일터에서도 유명 인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일하면 시간도 잘 가고 힘든 줄 모르고 하루가 즐겁다.

요사이 장애인 작업장 시설을 운영하며 욕실용 한방 비누를 열심히 생산하고 있다. 내가 꿈꾸던 일이 이루어져 참 기쁘다.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찾고 싶었는데 장애인들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니 행복하다. 앞으로 이들과 함께하며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 더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정인규 율리오
(성동성당)



※ 가톨릭 금빛신문은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을 500자 내외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구청(성모당) 정문 차량 출입 통제 안내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 ~ 공사 종료 시까지



교구 신청사 건축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위해 정문 차량 출입이 통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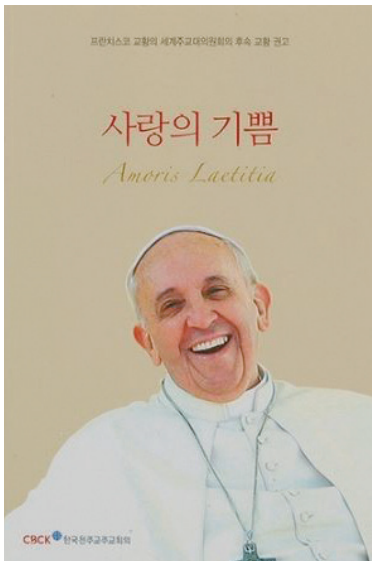
▶ 정문차량 통제로 인해 보행자만 출입가능 (공사기간 버스 진입 불가)

▶ 1,2주차장 사용 불가, 3주차장만 사용가능 ▶ 성모당 순례객은 대중교통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모당 미사(오전 11시)와 상설고해소(오후 3시)는 변동 없음

노년의 이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한 조언



인생을 만남의 연속이라 합니다. 만남은 숙명적으로 이별을 수반합니다. 이별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그리워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절망감과 공포,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세상에 남겨진 이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금빛신문은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에서 안내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위한 조언을 요약 발췌하여 실습니다.

256항. 죽은 이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 위안이 되고,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위령 감사송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는 공허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

는 것이 아닙니다.”

257항. 세상을 떠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하고 경한 생각이었다.”(2마카 12,44-45)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들을 도울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들의 전구를 효과 있게 할 수 있습니다.”

258항.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더욱 잘 살수록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행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욱 성숙하고 발전할수록 하늘 나라의 잔치에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이들에게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는 우리는 나에게도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받아들여 다시 만날 그때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조우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이 이 지상에서의 여정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금빛**

산책로

강정고령보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강정본길에 위치한 강정고령보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입니다. 4대강 사업의 전국 16개의 보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보입니다. 강정고령보를 중심으로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 종주코스, 오리배도 있어 가족이 나들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는 2012년 개관한 문화관이자 미술관인 ‘디아크 문화관’입니다. 도심지와 적당히 떨어져 있고, 완만한 산책로, 넓은 주차시설과 밤에는 아름다운 야경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름의 초입에 가족이 함께 이곳으로의 산책을 추천합니다. **금빛**



자 가 용

‘강정고령보’ 검색 (성모당 기준 40분)

대중교통

지하철 대구2호선 → 대실역 하차
→ 대실역(2번출구)정류장 →
버스(성서2) → 강정(종점)정류장
(성모당 기준 1시간)

가톨릭 금빛신문

대구 중구 남산로4길112 가톨릭교육원 가동 3층 가정복음화국

발행인: 조환길

주간: 박상용

편집: 기획팀(총괄 김사훈)

대표전화. 053-250-3077

E-mail. dgfamily@dgca.or.kr

Fax. 053-250-3078

기사제보 및 문의. 053-250-3114

가정복음화국을
온라인에서도
만나보세요!



※ 평균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구성된 살레시오 기자단이 가톨릭 금빛신문과 함께합니다.

하느님의 축복 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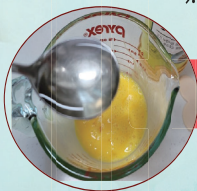
2017년 4월 30일 창간 _ 매월 마지막 주일 발행

건강한 음식 건강한 노년

옥수수 계란말이

재료: 계란 4알, 콘옥수수 50g, 맛술 1T, 식용유 0.5T, 소금 0.2T, 쪽파(대파) 15g

※ T는 티스푼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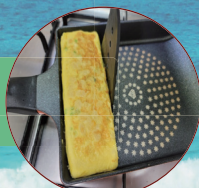
계란 4알을 풀어 그릇에 넣은 후 맛술과 소금을 넣고 저어준다.



대파나 쪽파를 잘게 썰어 준비된 옥수수와 함께 넣은 후 저어준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가열시킨 후 준비된 재료를 부어준다.



어느정도 익으면 뒤집개로 조금씩 덮어가며 한 쪽으로 몰아준다.



예쁘게 모은 계란말이를 익힌 후 알맞은 크기로 썰어낸다.

Tip!

옥수수는 눈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성분이 많고, 눈에 쌓인 피로감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체중의 감량과 붓기 제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비, 숙취, 빈혈 등에 좋으며 항산화 물질 덕에 노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족성지순례 (15)

행주성당

- 교황청 지정 성모순례지 -



가는길

자 가 용

네비게이션 '행주성당' 검색(성모당 기준 4시간)

대중교통

버스 고속버스(서울고속버스터미널) → 지하철9호선 → 당산역 → 버스(9707번) → 맨돌 하차 → 도보 16분
(성모당 기준 5시간 10분)

기차 KTX(서울역) → 지하철 1호선 → 노랑진역 하차 → 9호선 환승 → 당산역 하차 → 버스(1082번) → 맨돌 하차 → 도보 16분
(성모당 기준 3시간 30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에 위치한 행주성당은 명동성당, 약현성당에 이어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서 세 번째로 세워진 성당에 그 역사적 의미가 깊다. 1899년 교우촌이 생기면서 약현성당 관할 행주공소로 시작하였고, 여러 변화를 거친 뒤 2004년 의정부교구 본당으로 재승격되었다.

성당 건물은 근대 초기의 목조가구식 한옥인데, 소나무 등을 이용하여 7칸으로 된 맞배지붕 양식으로 지은 건물로 한옥의 멋과 향기를 간직한 건물이며 성당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장식하여 무척이나 소박하고 정겹다. 2010년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성모승천’을 주제로 모신 행주성당은 로마의 성모마리아 대성당과 특별한 영적 유대로 결합되어, 2016년 1월 교황청으로부터 성모 순례지로 지정받아 정해진 날 순례하는 순례자에게는 전대사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날

1. 교황 직할 성모 대성전 주보 축일 : 8월 5일
2. 행주성당의 주보, 성모 승천 대축일 : 8월 15일
3.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전례 거행일
4. 신자 각자가 일 년 중에 한 번 자유로이 선택한 날
5. 신심의 이유로 행주성당에 단체로 성지순례를 할 때

행주성당 순례자들이 성모님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순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대교구 성모당을 모델로 행주성당 성모당을 건립하였다고 한다. 하느님의 사랑과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행주성당으로 가족 성지순례를 추천합니다.

취재 : 박정자 엘리사벳 | 살레시오 기자



59호 가정미션 : 세계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함께 미사 참여하기

이렇게 생각합니다

- 세대별 의견 듣기 -

나는 어떤 계절이 좋은가요?

이 설문은 세대별 다양한 의식을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 대해 비판이나 부정적 시각은 삼가 주십시오.



▲ 설문지 링크

설문기간 2023.06.25(주일) - 2023.07.16(주일)

응답방법 ① QR코드 접속 후 제출

② 아래 작성 → 사진촬영 → 카카오톡채널 '가정복음화국' 발송

59호 세대별 의견 듣기 설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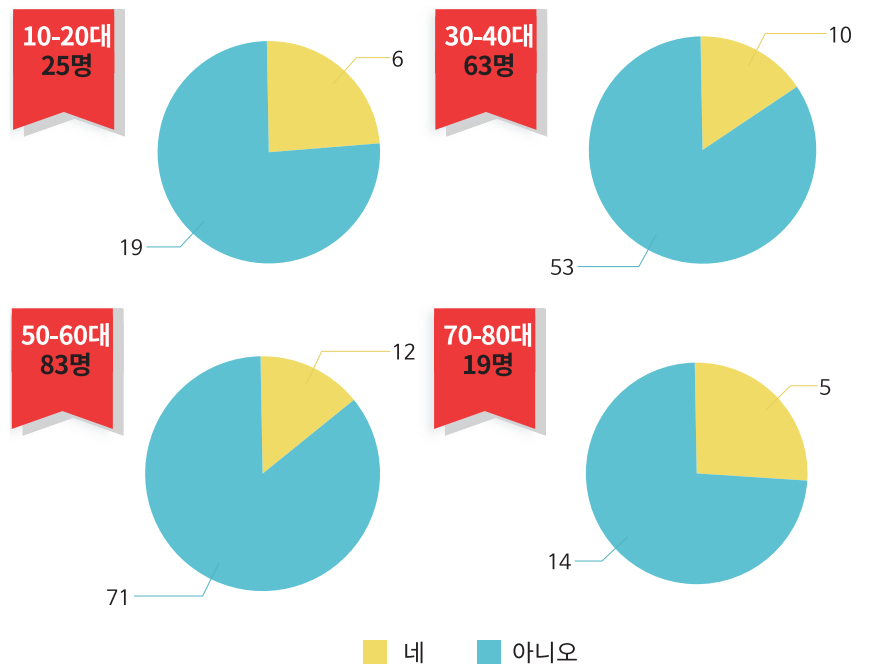
1. 연령대 : (대)

2. 나는 어떤 계절이 좋은가요?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지난(58)호 설문 결과

주제 : 일기를 쓰시나요?



■ 네 ■ 아니오

공지사항

카나혼인강좌

장 소 교구청 교육원 다동 대강당
날 짜 7월 : 2023.07.09(주일)
8월 : 2023.08.20(주일)
시 간 10:00-17:00
문 의 053-250-3077 · 3114
010-9461-3077(문자문의)

임신부 축복미사

장 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날 짜 7월 : 2023.07.14(금)
8월 : 2023.08.11(금)
시 간 10:00-12:00
문 의 053-250-3077 · 3114
010-9461-3077(문자문의)

독자 투고 모집

이야기가 있는 가족사진/편지글/노년의 향기

채택 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 dgsalesio@naver.com

※ 보내실 때 성함 및 연락처 필수 기재

마 감 2023.07.14(금)

문 의 053-250-3077 · 3114

공연소식

“목소리 높여, 그분께”

-PAX 찬양콘서트 '나는 포도나무요'-

장 소 범여대성당 드망즈홀
일 시 2023.07.15(토) 19:00
가 격 성인 2만원, 청소년 1만원
신청 및문의 010-4257-5247 (신청서는 QR코드)

